

길거리 푸드마켓 열기 속 한식의 인기

폴란드사무소

다양한 식품으로 가득한 Slow Market

-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비스와(Wista) 강변은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2015년 5월부터 매 주말마다 ‘Slow Market’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곳에 마련된 수백 개의 부스에서는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 과일, 유기농 제품뿐만 아니라 치즈 등의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 Slow Market의 모습 |



출처 : Plac Zabaw 페이스북, slowmarket.pl, warszawa.naszemiasto.pl

- 서양음식이 즐비한 ‘Slow Market’에서 한식은 유독 눈에 띄는 음식이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폴란드에 정착한지 20년이 넘는 고려인 요리연구가 ‘이네사 김’은 ‘Slow Market’에서 한국 식품 및 한식을 판매하고 있다. KIM T&V의 메인 셰프이자 다양한 TV 방송활동을 하는 그녀는 폴란드 내에서 한국음식 전문가로 통한다. 이네사 김에 따르면 “Slow Market에서 한국음식의 인기는 굉장히 높으며, 폴란드 현지인들은 잡채와 김치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성장하는 길거리 푸드마켓

- 푸드 페스티벌은 바르샤바 시내의 여러 공원에서 열린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푸드 페스티벌은 비스와 강변에서 열리는 ‘Slow Market’과 저녁에 개장하는 ‘Night Market’이다. 한편 ‘Targ sniadaniowy’에서는 아침식사를 즐기려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가득한데, 주말 아침에 간단한 식사와 함께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서울 한강과 흡사하다.
- 폴란드의 길거리 푸드마켓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푸드트럭과 같은 노점상 및 가판대 점포는 2016년 9,563개였으나, 2017년에는 9,732개로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도 매출액은 약 14억 즈위티(약 4,800억 원)로 전년도 매출액 약 12.7억 즈위티(약 3,840억 원)보다 9% 상승하였다.
- 비록 바르샤바를 비롯한 대도시의 길거리 음식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소도시들은 여전히 길거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2018년 3월부터는 근로자들의 휴식보장을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을 포함한 모든 상점의 일요일 영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길거리 음식점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길거리 음식점 점포 개수 연도별 추이 |

(단위: 개)

종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체인점형태 노점상	352	445	585	794	1,050	1,299
독립 노점상	11,065	10,135	8,637	8,582	8,513	8,433
가판대 점포	11,417	10,580	9,222	9,376	9,563	9,732

출처 : 유로모니터(www.euromonitor.com)

| 길거리 음식점 점포 연도별 예상 |

(단위: 개)

종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체인점형태 노점상	1,299	1,415	1,522	1,588	1,642	1,677
독립 노점상	8,433	8,336	8,223	8,124	8,044	7,974
가판대 점포	9,732	9,751	9,745	9,712	9,686	9,651

출처 : 유로모니터(www.euromonitor.com)

푸드마켓을 활용한 한식 트렌드 확산에 거는 기대

-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된 한식이 한식 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세계 곳곳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미국 유타주에서 인기를 끈 '한국식 컵밥트럭'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일랜드인들을 김치에 빠지게 만든 'JARU'의 아이리쉬 김치 역시 푸드트럭에서 시작되었다. 'Slow Market'을 통해 폴란드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을 홍보하고 노출시킴으로써 한식붐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warsawfoodie.pl